

## 서평

##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 저서 두 권

「이중환과 택리지」(이문종, 2014, 도서출판 아라, 국판, 579쪽)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 이야기」(이문종, 2022, 글을읽다, 신국판, 207쪽)

최원희\*

조선조 1751년(영조 27년)에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저술한 「擇里志」(이하, 「택리지」로 표기함)는 ‘한국 최초의 인문지리학서’(노도양, 1963)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지리학에서 「택리지」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본 서평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지리학에서 이루어진 「택리지」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그 성과 중 이문종의 기여를 개관하고,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성과 중 저서 두 권의 주요 내용 및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지리학에서 「택리지」에 관한 연구는 논문·단보·자료의 경우 1963년 이래 서수인, 노도양, 박영한, 이찬, 최영준, 이문종, 황정선·이혜은, 최인실, 양보경, 권정화, 전영권, 오세창, 예경희, 허우궁, 범선규, 김재한, 최창조, 김덕현, 최원석, 이전, 전종한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53편 정도가 있고, 저서의 경우 1969년 이래 노도양과 이문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3권 정도가 있다.<sup>2)</sup>

위와 같은 「택리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에서 논문·단보·자료 10편과 저서 2권은 이문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는 「택리지」의 지리학적 연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논문·단보·자료로는 「택리지로 본 대전」(1992), 「택리지를 통해 본 공주」(1994), 「「택리지」로 본 충청도」(2001), 「이중환과 공주」(2002), 「이중환의 생애와 「택리지」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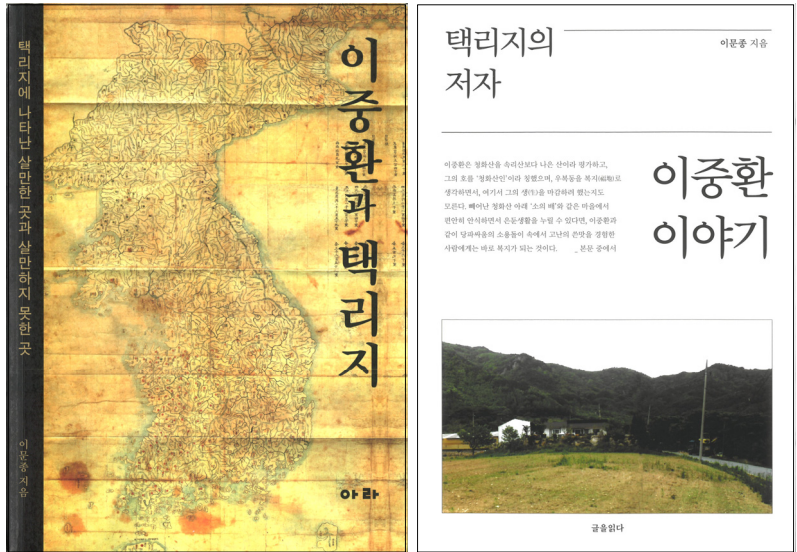
(2004), 「예산 고덕의 여주이씨 일문과 실학의 지역화」(2004), 「이중환의 생애」(2007), 「이중환 가문과 「택리지」 저작 배경」(2010), 「여주이씨의 두 근거지 황해도 금천과 충청도 고덕」(2010) 및 「청담 이중환: 1690-1756」(2021)이 있고, 저서로는 「이중환과 택리지」(2014) 및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 이야기」(2022)(이하, 「이중환 이야기」(2022)라 칭함)가 있다.<sup>3)</sup>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는 전반적으로는 한국지리 연구의 맥락에서 문화·역사지리 및 전통지리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는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의 생애·활동·가문과 「택리지」의 서지·내용에 관한 것인데, 이를 압축하면, 「이중환과 「택리지」」에 관한 것이다. 이문종은 「택리지」 연구에서 지리학적 접근 외에 역사적 및 서지학적 접근도 병행했다.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 중 저서 두 권은 자신의 논문·단보·자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헌고찰 및 광범위한 현지답사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이중환과 택리지」(2014)가 「이중환과 「택리지」」 전반에 관한 방대한 저술이라면, 「이중환 이야기」(2022)는 「이중환의 생애·활동·가문」에 초점을 맞춘 저술이다.

「이중환과 택리지」(2014)는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환은 어떤 사람인가」(1장), 「「택리지」는 어떤 책인가」(2장), 「여주이씨의 두 근거지: 황해도 금천과 충청도 고덕」(3장) 및 「「택리지」를 따라 가는 답사여행: 충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좌) 「이중환과 택리지」(2014) / (우) 「이중환 이야기」(2022)

그림 1.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 저서 두 권의 앞표지

청도 답사를 중심으로」(4장)가 그것들이다.

이 책에서 이문종은 이중환의 생애·활동(1장)·가문(1·3장) 및 「택리지」의 서지·내용(2장)에 관한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병행했는데, 문헌고찰을 통해서 한문 서적·전적(典籍)을 최대한 제시했고, 현지답사를 통해서 여러 그림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 이문종은 「택리지」에서 언급됐거나 이중환의 생애·활동·가문에 연관된 충청도 전지역의 답사결과를 144쪽에 걸쳐 정리했다(4장). 이는 그가 「택리지」 저술과정에서 현지답사를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이문종은 이 책에서 「이중환과 「택리지」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새로이 밝혀냈는데, 예를 들면, “「택리지」의 발문은 강경의 팔괘정에서 쓰고, 주집필은 주로 공주의 사송정에서 했을 것이다.”(143-149), “기록상으로는 존재하던 ‘이중환의 조부 이영의 묘’와 ‘이중환의 초취부인인 사천목씨 묘로 추정되는 진주강씨 묘’가 과거 연기군 남면 고정리 뜰이기마을에 있다.”(423-433) 등이 그것들이다.

이문종은 이 책의 저술과정에서 필자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택리지’ 연구 3부작은 ‘이중환의 생애·활동·가문 연구’, ‘택리지’의 서지·내용 연구’ 및 ‘택리지’ 답사기 작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의 이런 구상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택리지의 저자

이문종 지음

이중환 이야기

이문종은 청화산을 육이산보다 나은 산이라 평가하고, 그의 호를 「청화산인」이라 칭했으며, 우복동을 북지(北地)로 평가하면서, 여기서 그의 생가를 비유하여 「청화산」이라고도 부르다. 백두대간 청화산 아래 그의 백두 같은 지역에서 평안히 안락하면서 온통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이중환과 같이 당나라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의 전야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바로 복지가 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글을 읽다

「이중환 이야기」(2022)는 1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기 땅에 사천목씨 부인을 묻고’(1), 「택리지」는 강경의 팔괘정에서 쓰고’(2), ‘청화산 우복동에 은거하려 했다’(3), ‘이중환에게는 온천욕을 즐기는 장소가 있었다’(4), ‘타고난 문장력과 박학한 소년’(5), ‘이중환계 여주이씨 가문과 학통’(6), ‘청류 남인을 표방했지만’(7), ‘당쟁에 인생을 발목 잡고’(8), ‘집안의 주요 인물로’(9), 「택리지」 속의 발자취’(10), ‘기나긴 인고 끝에 얻은 명예회복’(11), 「택리지」에 서·발문을 쓴 이들과 이중환’(12) 및 ‘설라산 백운봉 아래에 잠들다’(13)가 그것들이다.

이 책은 이문종이 「이중환과 택리지」(2014) 간행 이후에도 「이중환과 「택리지」에 관한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계속하여 「이중환의 생애·활동·가문」에 관한 여러 기존 내용에 새로운 수집자료를 추가한 저술인데, 새로운 수집자료의 예를 들면, ‘청화산 우복동에 은거하려 했다’(3), ‘이중환에게는 온천욕을 즐기는 장소가 있었다’(4) 등이 그것들이다.

이 책은 본래 이문종이 ‘보관해 오던 이중환 관련 미사용 자료’에 「이중환과 택리지」(2014)에서 추출한 이중환 관련 내용을 더하여 ‘이중환 평전(李重煥 評傳)’ 형태로 정리한 것이었으나, 간행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내용 중 각주와 참고문헌이 전부 삭제되고, 부득이 책의 제목마저 ‘이중환 이야기’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문종은 이리

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워했다.<sup>4)</sup>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책은 ‘이중환 평전’으로서의 원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이문종은 1960년대 중반에 지리학의 세계에 입문하여 문화역사지리학을 주로 연찬하면서 1992년에 처음으로 「택리지」에 관한 논문(“택리지로 본 대전”)을 발표한 이래 2022년에 「이중환 이야기」를 간행하기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쳐 「택리지」 연구를 지속했다.<sup>5)</sup>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 성과 중 저서 두 권은 일부의 미진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리학에서 1969년 노도양의 ‘국역본 「택리지」 간행 이래 ‘첫번째 및 두번째의 「택리지」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 지리학에서 「택리지」 연구가 부진한 반면 한문학 등 여러 학문에서 「택리지」 연구가 활발한 상황 속에 간행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 저서 두 권은 그의 논문·단보·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헌고찰 외에 특히 광범위한 현지답사에 의거해 저술된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문종이 「이중환과 택리지」(2014)를 저술하면서 계획했던 ‘충청도 외 나머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택리지」 답사기 작성’과 「이중환 이야기」(2022)를 저술하면서 시도했던 ‘온전한 이중환 평전 저술’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이문종이 남긴 「택리지」 연구 저서 두 권이 한국 지리학에서 「택리지」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 註

- 1) 이문종(李文鍾, 1939~2022)은 공주사범대학 사회생활과 지리전공(1967, 문학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과정(1972, 교육학석사)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1988, 문학박사)을 각각 졸업했다. 그의 석사 및 박사 과정 논문 지도교수는 이찬(李燦, 1923~2003)이었다. 이문종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1975~1991) 및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1992~2005)로 재직했고,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2002~2003)을 역임했다.
- 2) 한국 지리학에서 「택리지」에 관한 연구 성과의 상세 서지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riss.kr>),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이기석·윤정숙, 1982, 보진재), 「한국지리논문목록: 1981~1985」(이기석·한주연, 1988, 보진재),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이기석·김영현, 1993, 백산출판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이문종의 「택리지」 연구에 관한 상세 서지 역시 ‘주 2’에서 예시한 홈페이지, 서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이중환 이야기」(2022) 간행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문종은 이 책의 간행을 불과 며칠 남기고 타계했다.
- 5) 이문종의 지리학 연찬 전반과 「택리지」 연구에 관해서는 “추도문: 여촌 이문종(1939~2022)의 지리학 연찬”[최원희, 2023, 문화역사지리, 35(1), 188-204]을 참조바란다.